



제1308호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인요한 혁신위원장, “네, 명심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 북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당 혁신과 관련해 가감 없는 춘소리를 내놨고 인 위원장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며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洪 “이준석 신당 만들면 김기현은 먹잇감 돼”

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해줘야 한다”며 “그걸 해주느니 마느니 논의하는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암파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당 안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인, 우리가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는 아픈 처방을 내렸다”며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고 웃으며 말했다.

홍 시장은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판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네.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 김성균 기자

G7 외교장관 “北 탄도미사일 발사·리에 무기제공 강력 규탄”

“중국에 직접 우려 표명 중요…글로벌 과제에는 협조 필요성도 있어”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실무 만찬(워킹 디너)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고,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복구와 부흥을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낸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노건우 기자

임태희 “일부 김포시민에 달콤한 제안…국민 입장선 씁쓸한 맛”

도의회 ‘김포 서울 편입’ 질문에 “간단히 제안해 후다닥 해결할 문제 아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간단히 제안해서 후다닥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의 관련 질의에 “행정 개편은 문화적, 전통적, 국민 실생활에 관한 것과 행정 효율성 등이 있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김포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 임유찬 기자

복지장관, 병원협회 등 만나 “지역에 종사할 의사 확보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복지부와 병원 관련 협회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중추 기관을 육성하고, 국가 중앙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며 “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 확충과 동시에 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혼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각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난도 복합적 질환자를 주로 치료할 큰 규모의 병원과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의 허리가 될 중소규모 병원, 특정 질환군을 전문적 으로 치료할 병원들이 유기적으로 협

력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상급종합 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종합병원협의회 대표들과 각 대학병원장이 참석했다. 이 관계 국정기획수석 비서관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도 함께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병협 등 병원단체는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신재일 기자

우리금융그룹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동네엔 천사가 산다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네에 몰래 찾아온 천사, 선한기개 사장님, 복지센터에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대원들 [빵에 빠지다], 임신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고 고덕동 [카페 제이], 뇌성마비 복지관에 세탁으로 재능 기부를, 방학동 [미드세탁소] 사장님님이 나눠준 건 음식이나 세탁물이 아닌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금융그룹이 우리동네 선한기개 친사 사장님들을 지원합니다.

노후된 개게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복별금을 지원 및 경남 찬성읍 새마을 온에 업무집 및 훈련센터를 통한 가게 홍보, 복사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우리는 믿습니다. 선한 마음은 또 다른 선한 마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선한마음이 퍼질지도’에서 우리동네 선한기개를 확인해보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증권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생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남현희 이틀만에 경찰 재출석…“정말 몰랐다” SNS서 억울함 호소

“국위선양 위해 인생 바쳤는데…제가 죽어야 끝나는 것인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전 연인 전정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송파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이를 만이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구속된 전 씨와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수도 있다.

남씨는 이날 송파서로 들어서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전씨와 대질하면 어떤 얘기 할거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정조의 거짓 말’이란 제목으로 9개의 글을 연달아 게시하며 전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씨는 “전정조를 컨설팅, 정보기술(IT), 강연, 독서모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으로 알고 지냈다”며 “(전씨가) 기업 컨설팅을 한다고 했고 최근에 배달의민족 대



재소환된 남현희

표에게 5천만원을 받고 1시간 컨설팅을 해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또 “본인의 강연 비용이 1인 3천만원이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전정조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고, 한 번만 만나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며 “전정조는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온 많은 사람 중 내가 일일이 문구를 읽어보고 선택해서 컨설팅해줄 거야’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남씨 자신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남씨는 또 “전씨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며 “몇몇 사람에게 차를 사준다고 하고 렌트 방식으로 유인해 주민 등록증을 받고 그 사람의 대출금이 얼마 만큼 나오는지 확인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친 부분을 직접 듣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성별과 파라다이스 호텔 혼외자 사칭 등 다른 논란들과 관련해서도 전씨가 보여준 주민 등록증 사진, 전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전정조가 끝까지 거짓말했다.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 왔다지만 믿기 어렵다”며 전날 남씨를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남씨는 “운동만 26년, 선수촌에서 20년

간 국가대표로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만 했다. 40살이 넘었는데 이걸 모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몰랐다. 답답해 미칠 것 같다. 전정조를 만나면 왜 나한테 나타나 사람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따지고 싶다)”며 억울한 심경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26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국위선양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나 제가 죽을까요?”라고 썼다.

앞서 남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전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실수로 전씨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지만 믿기 어렵다”며 전날 남씨를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 송원기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출범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조 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연말 전 법안 발의 등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마친 뒤 “연말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한두 개는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마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결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편입 추진 법안에 특정 지역 한 두군데만 (포함)할지 서너 군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특위는 향후 관계 부처 업무 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 이은정 기자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산업계 혼란…거부권 전의할 것”

내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노조법 개정안 관련 공동성명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함께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이 법이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

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용자 법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 경제6단체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절충안 여지에 대해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해왔지만, 타협할 성질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만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견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3일) 경제단체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견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野 탄핵 논의에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불법 탄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논의하는 데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국무위원 21명 중 10명 정도를 이미 탄핵했거나, 탄핵을 위협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를 비롯해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나. 위증교사라도 했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게 된 것을 가리킨 발언이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도대체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할 문제”라며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 그거는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 박지원 기자

배우고 싶던 거, 보고 싶었던 세상, 전파해 보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11하고 싶은 거 다해”

www.cheerup31.com

홍익표 “김대기, 28억 발행어음 재산 신고 누락 사과해야”

“단순 실수 아냐…金, 내용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처벌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8억원 발행어음을 누락해 재산 신고를 했다”며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었는데 김 실장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비서실장은 지난 3월 말 관보에 게재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이 작년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천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예금은 23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28억 7천만 원 상당의 발행어음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작년 5월 신고 당시 발행어음 부분이 누락됐다. 윤리정보 시스템에서 통보된 금융자료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직원이 발행어음과 CMA를 혼동해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 자산(발행어음)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질의에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심사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천만원 넘으면 거짓 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원 이상 시 해임 포함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일체의 징계 처분이 없다고 했다”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8억원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재산 신고 누락으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가 있다”며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선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방망이 처벌하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우리 어르신들이 소리를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에 투자해 오늘의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했던 혜안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은 기술에 기반한 도전으로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혁신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존재”라면서 “민주당은 성장 기로에 처한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관련 정책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송진영 기자



이준석, 토크콘서트 찾은 인요한 향해 씨늘한 거리두기

인요한 “이준석, 돌아와서 화합하면 중책 맡아 도와야”

한미일 우주안보대화 첫 개최 국가우주전략·우주 내 위협 논의



한국, 미국, 일본이 8일 서울에서 ‘한미일 3자 우주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3국 우주안보대화는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간 과장급 대화다. 3국 대표단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우주의

이용을 촉진하고, 우주 체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화는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 우주안보 관련 사안에 초점을 뒀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인 ‘캡포 데이비드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당시 성명에서는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회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이영민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선대위원장’이 가능한 것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이 바뀌지 않을 경우’ 12월 말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들어와야 한다. 빨리빨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건의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취소된 점을 거론한 뒤 “그분의 지난간 일은 다 지워버렸다. 제가 그거 통 크게 했다. 그러면 본인이 조금 응대할 때가 됐다. 우리한테 응답을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에 그를 만나러 찾아갔다가 대화가 불발된 데 대해선 “문전박대를 당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쑥 갔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가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많이 마음이 아프고, 한이 많이 차 있다”고 진단하면서 “계속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득해야겠다. 위로하고 설득하고”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한 이 전 대표의 당시 발언과 관련해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의사인) 제가 결정할 일”이라며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음 아픈 것을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는 인 위원장은 “4·3 추모를 하려 제주에도 내려가겠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여야 소속 지자체장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김희성 기자

금태섭 “금요연설회의, 신당으로 가야…이준석 조만간 만날 것”

김종인 역할론에 “조언하는 역할, 직접 나서진 않을 것”



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 전 위원장에게 조언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조언하는 역할을 하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출마하고 말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출마하더라도 비례대표를 내는 위성정당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당(黨)이 여러 당이 비례대표를 내서 서로 민주당의 적자라고 경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할 텐데 거기에는 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 노정윤 기자

홍성국 의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끝내야”

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실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홍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끝낼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5월에 종료됐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관계기관 간 협의’란 모호한 이유로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부처가

공동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3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입지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홍 의원은 “연구용역 중단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며 “이달 중 연구용역을 끝내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희철 기자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이 작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구에 시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아도 꽃송이를 오가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함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엔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런 제 전부가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미원을 쇼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금융그룹

“당일 수익 500%”…6개 조직 ‘가짜 리딩방’ 열고 151억 뜯어

조직별 역할 나눠 텔레그램으로 공모…투자전문업체 사칭해 253명 피해

6개 조직이 연합해 실제 존재하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리딩방’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로 유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들 조직총책급 6명을 비롯해 49명을 검거,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에 걸쳐 모두 송치했다. 이 중 24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수익을 분배했다. 각각 ‘해외 운영’, ‘피해자 유인’, ‘기망’,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의 역할을 분담하는 식이었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찰은 이들이 투자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든 뒤 30여 차례 이름만 바꿔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인당 200만원~4억3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피해자 중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 등이 있었다.

이들 조직은 편취한 자금을 필리핀 현지 카지노 환전장을 이용한 환치기,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해외 운영조직의 총책 A씨 등 핵심 피의자 9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이들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 16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자수서를 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랜섬웨어, 해킹 조직의 범행 모의 장소였던 텔레그램이 최근 민생범죄 투자사기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 범죄 수익금 횟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 행위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사기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전문업체는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검증된 공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규현 기자



막막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무자본 캡투자’로 전세금 150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송치

대전 유성경찰서는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131명에게 전세 보증금 150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사들였다.

전세 임차인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수사하고 있다.

/ 황순길 기자

간호조무사가 불법 수술 집도…눈 안 감기고 수술 부위 곪아

강남 성형 전문의로 속여 의사에게 수술법 가르치고 중국 원정도

의사 면허 없는 상습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 쟁기 뒤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적발됐다.

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상당수는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쟁기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그런 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적은 있지만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다.

그런데도 의사 행세를 하며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했다.

특히 B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했다고 경찰



불법 성형수술 장면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 2명 흉기로 찌른 70대에 살인미수 적용

은 전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골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A, B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쟁기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은 이 병원에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천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쟁기기까지 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민숙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77)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박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찔렀다.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배성균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자 19명 적발

퇴사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낸 근로자와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 16명과 사업주 3명 등 1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받아 간 실업급여 금액에 추가 징수분을 더해 2억5천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들 근로자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사업주와 공동해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감추고 총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쟁기 혐의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 퇴사 처리했지만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해 급여를 자녀나 동생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또 다른 3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재취업을 하고서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

4대 보험 신고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고 날짜로 조정하기도 했다. 사업자들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로 월급의 일부를 대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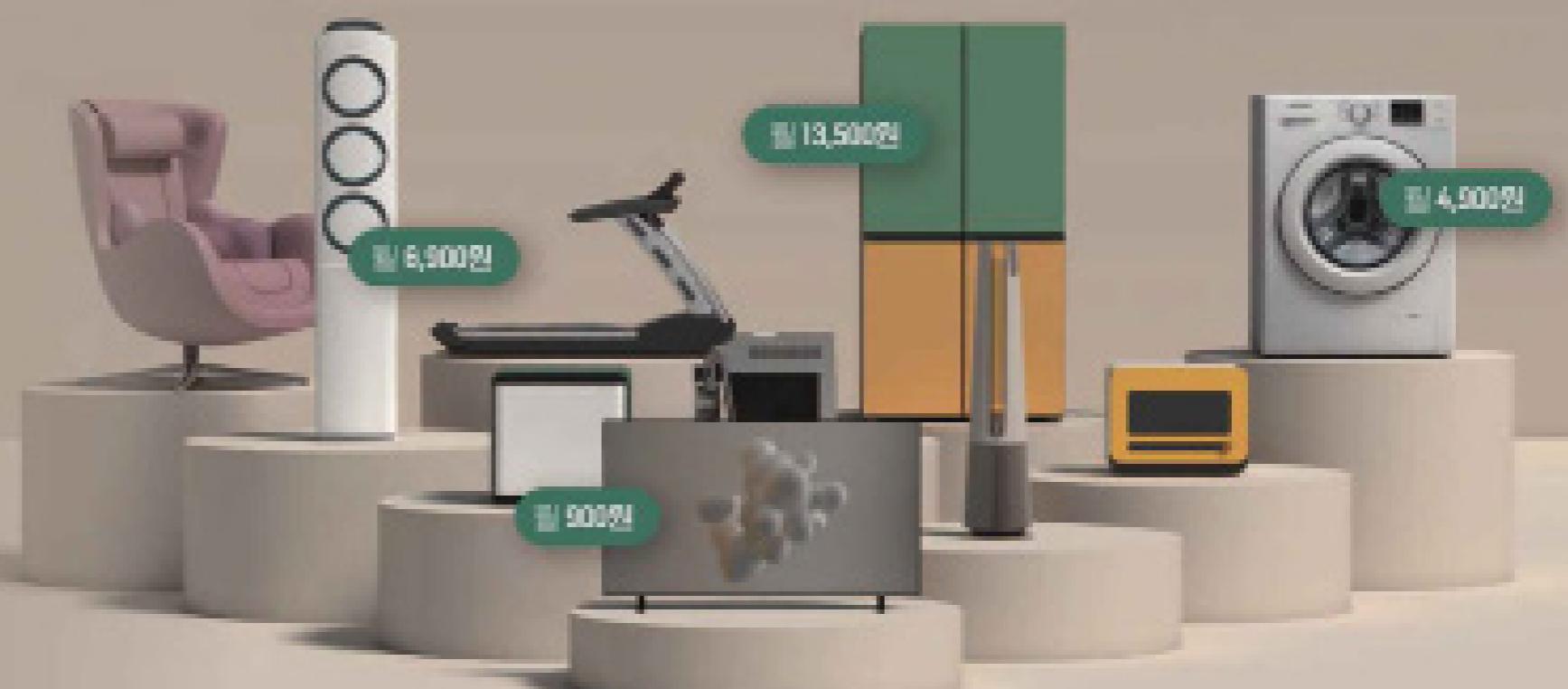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원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10/10하고 맛 좋은 게
천지万物가니라
[부산 자갈치 시장 고영희 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LG

World EXPO 2030
BUSAN, KOREA

BNK부산은행, 스타트업 육성 '썸 인큐베이터' 투자유치 지원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썸 인큐베이터' 데모데이

BNK부산은행은 지난 6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썸 인큐베이터' 시연회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는 초기 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 사무 공간 무상 제공,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에는 '썸 인큐베이터' 8기와 수료 업체 등 17개 사가 참여해 투자유치와 업무제휴를 위한 기업설명회(IIR), 제품·사업모델 홍보 등을 했다.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기관투자자 등 스타트업 관계자도 행사장에 마련된 공간에서 1대 1 만남으로 협업과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은행은 2019년 7월 '썸 인큐베이터' 개소 이후 지금까지 90개 업체를 지원했다. 현재 8기에 선정된 13개 기업체가 BNK벤처투자의 지원을 받아 30여 억원을 투자유치 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이번 행사는 썸 인큐베이터와 함께 성장해온 창업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철도노조,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

철도노조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민영화 촉진"

관련법 개정 논의 반발해 국회 앞 집회..."철도는 쪼갤수록 안전에 취약"

이 부여한 철도노동자의 사명"이라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학계, 종교계와 연대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력결의 대회'를 열고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철도 공사가 맡도록 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가 나뉠 경우 열차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는 쪼개면 쪼갤수록 안전에 취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는 지난 2003년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결과"라며 "당시 노사정은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다단계 외주화 등 민영화를 막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막고 철도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

철도노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져 철도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은 2만3천여명 중 39%에 달하는 9천여명이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편의점 비닐봉지도 계도기간 연장…“소상공인 부담 고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셌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조례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례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례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례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

서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 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 황순길 기자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

드럼·통돌이·교반식 부문 1위 석권

LG전자가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세탁기·건조기 세트 평가에서 주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컨슈머리포트는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Best Matching Washer & Dryer Sets)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LG전자는 ▲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 통돌이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 교반식(봉돌이)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소형 세탁기·건조기 부문은 밀레가 1위였다. 특히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1~6위를 휩쓸었고, 통돌이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87점으로 세트 종합 점수 1위를 차지한 LG전자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제품을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드럼세탁기는 세탁 성능, 에너지 효율, 물 절감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 건조기는 건조 성능, 예측 신뢰성, 고객 만족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84점으로 통돌이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부문 1위로 선정된 LG전자 통돌이세탁기는 5년 내 고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측 신뢰성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LG전자는 올해 초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세탁기' 발표에서도 드럼, 통돌이, 교반식 3개 분야에서 1위부터 3위를 모두 석권했다.

이처럼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회전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DD(Direct Drive) 모터 등 핵심 부품의 기술력이 크게 기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전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설문과 자체 테스트를 기반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 권정석 기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포브스 선정 '아시아 영향력 있는 여성'



으로, 2022년 12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주목받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스마트폰·TV 제조 업체인 삼성전자의 사장 17명 중 유일한 여성"이라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최대 판매 업체로 성장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유니버설코리아, SC존슨코리아, 로제알코리아를 거쳐 2007년 삼성전자에 합류한 마케팅 전문가다.

삼성전자에서는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팀 마케팅그룹장, 전략마케팅실 마케팅팀장,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을 지내며 '갤럭시 신화'를 쓰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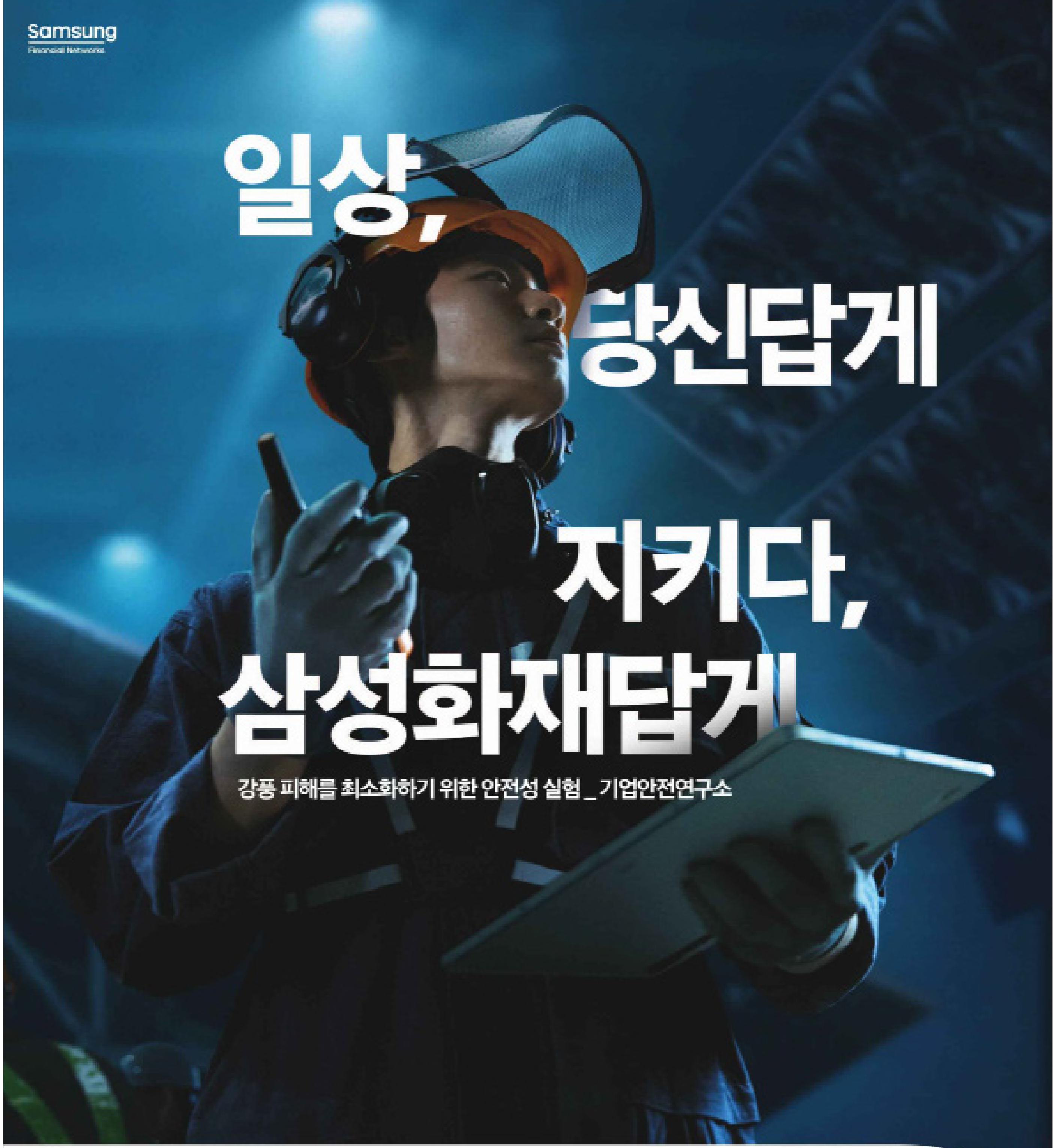
작년 승진 인사 때 삼성전자는 이 사장에 대해 "입사 후 갤럭시 마케팅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며 고객 가치·경험 중심 회사로의 성장을 선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 조규진 기자

iPhone 통화녹음이 필요할 땐
나만의 AI 개인비서, 에이닷

SKT의 AI는 누구에게나 있다
AI for Everyone
SK telecom





Samsung
Financial Networks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실험_기업안전연구소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_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_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_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빈대 확산 우려에…서울시, 지하철·버스·택시 방역 강화

지하철 방역 3배 이상 늘리고 직물의자 고온살균…버스·택시도 맞춤점검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 사태가 잦아 지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하철은 해외 빈대 확산 소식이 알려졌던 시점부터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특히 좌석 직물 소재 등에서 빈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와 철도운영기관이 열차·역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문 방역업체 검역 의뢰와 방역체계 정비, 방역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 사용 등을 주문했다.

또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은 열차의 기지 입출고 시 의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준 방역 횟수는 연 9회이나 연 30

회로 3배 이상 늘려 열차를 관리하고 있고 직물 의자는 고온 스팀 청소기로 살균·살충 작업을 시행 중이다. 직물 의자



는 단계적으로 빈대가 서식할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9호선과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정기방역 이외에 특별방역을 시행하며 방역 주기를 단축했다.

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열차 일일 점검을 통해 빈대 발생 징후가 포착되면 시, 보건소 등과 공동 확인하고 빈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을 집중적으로 방역한다.

빈대 관련 시민 신고는 또다 지하철 애플리케이션, 120다산콜센터(☎ 120)로 하면 된다.

버스는 차량 내 직물 소재 의사가 거의 없지만 공항버스 등이 운영되는 만큼 맞춤형 방역을 시행한다. 시내·마을버스도

빈대 출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방역한다.

택시도 직물 소재가 거의 없으나 모든 택시(장애인콜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 소독제, 물티슈, 청소기 등으로 차 내부를 관리한다. 법인 택시의 경우 차고지에서 차를 관리하고 개인택시는 실태점검을 통해 방역 상태를 살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가 선제로 추진하는 빈대 관리 대책에 벌맞춰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집중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그간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확산 시기에도 대중교통

집중 방역 관리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모든 운영 노하우를 쏟아 안전한 교통 이용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이영철 기자



‘서울 편입’ 김포 시민단체 7일 기자회견

‘서울 편입’ 김포 시민단체서도

찬반논쟁…공론화 본격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과 관련해 시민·주민단체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포 지역 시민단체 시민의힘은 7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을 ‘흑세무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 편입 계획은) 김포를 김포답게 완성할 신념·철학·정체성을 저버린 서울의 존적 사대의식”이라며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해 망국적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장과 국민의힘은 김포를 팔아먹기 위한 흑세무민을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며 “멈추지 못할 거라면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면서 시장직을 걸었던 것처럼 편입 찬반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포경단시민연대와 김포원도심 종연합회 등 김포 지역 주민단체들은 앞서 진하기로 했다.

서울 편입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원도심종연합회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김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372명 가운데 89.25%

에 해당하는 332명이 서울 편입을 희망하기도 했다.

경기도 현상 유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포함을 희망한 비율은 각각 5.91%(22명)와 0.81%(3명)에 그쳤다.

김포경단시민연대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교통·학군이 개선되는 데다 재산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서울이라는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포시는 이날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 서울 편입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양승준 기자

순천 장터 찾은 김여사 “많이 파시게 서울서 홍보하겠다”

시민 환호 받고 휴대전화 기념 촬영도…제철 농산물·특산물 구입



김건희 여사가 7일 전남 순천시 아랫장을 찾아 반건조 생선을 구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 전남 순천 아랫장을 통로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파란 머플러에 청바지, 스니커즈 차림의 김 여사는 시장 노점과 수산물 가게, 건어물 가게 등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상인에게 “경기가 많이 안 좋나”고 물었고 상인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온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그래서 제가 대신 왔다”며 “앞으로 많이 파실 수 있도록 제가 서울

가서 홍보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직접 현금을 꺼내 배팅 이를 구입하며 “제가 더 많이 사드려야 하는데…”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민어·서대 등 생선과 시래기·부추 등 농산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개 뒤집 등을 차례로 구입했다.

김 여사는 주변에 물려든 시민들로부터 환호받으며 일일이 약수를 했고,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 김진수 기자

한국 성장이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여행할 때도 하나뿐인 내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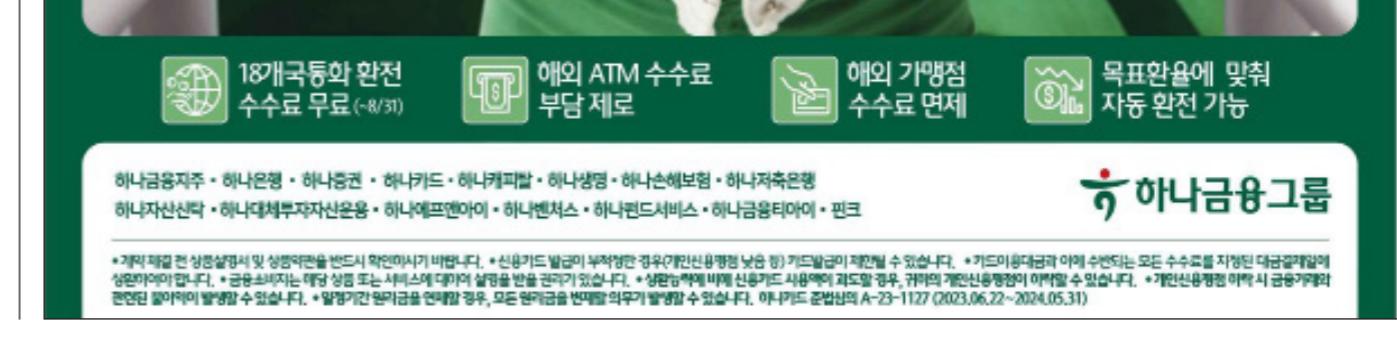
해외 수수료는 걱정 없는 편

환율 걱정 없이 완전하는 편

낯선 환폐도 두렵지 않은 편

그래서 이번 여행도 더 신나는 편

지금 떠나봐, 트래블로그로
하나뿐인 여행으로!



인천 국제학교 유치 지지부진…송도도 영종도 ‘주춤’

양해각서 체결됐지만 진척 없어

외국인 정주 여건을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국제학교 유치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에 영국 명문학교인 ‘해로우 스쿨’을 유치하려고 지난 6월 이 학교의 아시아 설립 인허가 법인(AISL Harrow International School)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다.

예정 부지인 송도 3공구 제2국제학교부지(7만1천㎡) 매입 가격을 포함한 초기 투자비만 1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 계획 등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아직 제출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AISL이 해로우 스쿨 본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해로우 스쿨을 개교할 권한을 위임받은 영리 법인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학교를 직접 개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경제청장 추천을 거쳐 관할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시아에 해로우 스쿨을 유치하려면 본교와의 소통 창구인 AISL과 협상을 거쳐야 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아직 뚜렷한 진척은 없으나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유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의 국제학교 유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의 교육시설 용지인 3개 필지(10만1천㎡)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6월 사업 설명회에 이어 주민 의견 수렴도 마쳤다.

/ 민영기 기자

72

HI 5672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웃을 수 있게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43

HI 4543

44

HI 4544

45

HI 4545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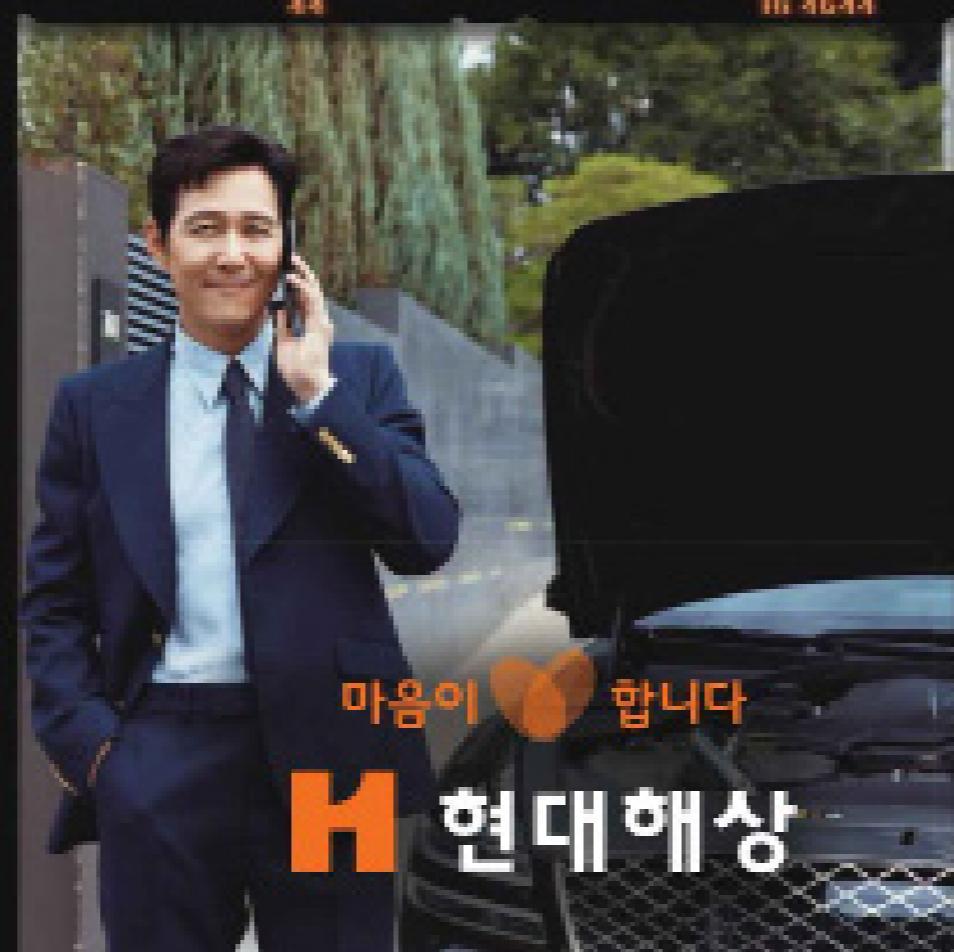
HI 5656

57

HI 5657

DOI -

HI 5658



“생리대 한 번 갈 시간 없이 근무…의료사고 두려워”

울산대병원 노조원 인력부족 한목소리…분회장 단식농성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파업 중인 울산대학교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우리가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를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울산대병원 노조)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간호 인력 부족 증언대회를 열었다.

근무 10년 차라고 밝힌 한 간호사는 이날 증언대회에서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싶다는 의욕은 넘치지만, 밀려드는 입·퇴원과 시술, 검사, 처방 앞에, 컴퓨터에서 눈길 한 번 안 떼는 간호사가 되기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8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 생리대 한 번 갈지 못해서 생리혈이 새고, 입에 뭉개 집어넣을 새도 없이 공복으로 뛰어다니며 밀려오는 산더미 같은 일들을



인력부족 증언하는 울산대병원 직원들

겨우 쳐낸다”며 “10년 일한 나도 정신없는데 저연차 간호사의 경우 투약 실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의 여유가 환자의 안전을 만든다”며 “의료사고가 생길까 두려워, 인력 충원을 위해 파업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증언에 나선 또 다른 간호사는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간호인력 문제는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들이 원하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지난 8월 17일 상견례 이후 25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기본급 인상률·인력 충원 여부 및 규모 등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창원 울산대병원 노조 분회장은 병원 측에 장기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전날(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병원은 파업 8일 차인 지난 1일부터 입원환자 진료 축소에 들어가 병상 가동률을 약 50% 수준으로 줄였다.

병원 측은 아직 외래진료 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울산대병원은 울산에 있는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이다.

/ 서정미 기자

고사리손으로 키운 농작물 팔아

기부한 화성 청원초 학생들

전교생 55명 규모의 ‘작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7개월간 정성 들여 키운 농작물을 팔아서 모은 돈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농작물 재배해 기부한 청원초 학생들 농작물 재배해 기부한 청원초 학생들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 마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이웃에게 써달라며 14만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청원초 학생들이 지난 9월 마도 전통시장에서 열린 황토이슬축제에서 농작물을 판매해 마련한 돈이다.

학생들이 판매한 농작물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교내 뒷밭에서 농



장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직접 재배한 단호박 8kg, 감자 10kg, 오이고추 10kg 등 이었다.

박준수 청원초 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팔아 모은 기부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 한지혜 기자



포항 연어スマ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

“수입 의존 연어 국내산으로 대체” 포항 연어양식클러스터 착공

경북 포항시는 7일 남구 장기면 금곡리에서 ‘연어スマ트양식 클러스터’ 착공식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노르웨이 닐스 월리슨사는 1883년 창업한 이후 현재 연간 약 3만t 생산, 7만t 가공능력을 갖춘 연어 양식기업으로 부화, 치어 사육, 가공에 이르는 기술을 보유했다.

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를 국내에서 양식할 수 있는 기반을 장기면에 만든다.

400억원을 들여 2만8천570m² 땅에 스마트양식 기반 시험시설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9만5천570m² 배후부지에 연어 양식장, 가공처리시설, 사료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면 일원은 바다와 하천이 인접해 단수와 해수를 오가며 서식하는 연어 생육에 적합한 곳이다.

포항시는 2021년 4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됐고

2021년 11월 미래아쿠아팜, 노르웨이 닐스 월리슨사와 투자 및 기술협력 협약을 맺었다. 노르웨이 닐스 월리슨사는 1883년 창업한 이후 현재 연간 약 3만t 생산, 7만t 가공능력을 갖춘 연어 양식기업으로 부화, 치어 사육, 가공에 이르는 기술을 보유했다.

시는 기술협력으로 연어 대량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사육방법을 적용해 연어 생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시는 스마트양식기반 성능시험장이 갖춰지면 연간 1천t의 연어를 생산할 수 있고 배후부지가 완공되면 연간 1만t, 1천 300억원 규모 연어를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에서 양식된 연어가 세계로 수출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용찬 기자

강원도의회 “춘천~홍천 국도 확장, 국가계획에 반영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PECIAL AUTONOMY COUNCIL

도의회는 “또한 제2경춘국도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춘천시 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도 제6차 계획에 반영되고도 최종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박기영(춘천3)

안전건설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해당 의제를 지역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규 기자

‘나훈산’ 방영 완주 대둔산, 올해 45만명 넘게 찾아 ‘핫플’ 부상



도립공원인 전북 완주 대둔산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방영에 힘입어 ‘핫플레이스(사람이 몰리는 인기 장소)’로 부상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

월 5일까지 접계된 대둔산 탐방객은 45만 8천597명으로, 이미 지난해 통계(41만5천756)를 넘어섰다. 특히 이달 3일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의 대둔산 산행이 방영된 이후 4일(1만1천804명)과 5일(1만2천829명)에 탐방객이 몰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에는 대둔산을 비롯해 천등산, 모악산, 기차산 등 명산이 많다”고 말했다.

/ 권도현 기자

Have a Good Neighbors

당신 곁엔 좋은 이웃이 있나요?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세상 모든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말

Have a Good Neighbors



금융의 모든 순간
NHN농협은행

매주 전화로 괴롭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경여나 척척하는지
목사라도 아첨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옵니다.

NH를 한결같이 편안하게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농협
마이페이지

농촌 독거 어르신 맞춤서비스

나의 농협 마이페이지는 농촌 지역 노약자 및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은행 나들스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의 친구가 농협에 온다

World EXPO 2012 | 2012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BUSAAN, KOREA | 세상을 바꿉니다

NH농협은행

이정후, MLB닷컴 선정 '매력적인 FA 9인'...“순조롭게 적응할 듯”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선언한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를 향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진다.

MLB닷컴은 8일(한국시간) '가장 매력적인 자유계약선수(FA) 9인' 제주 기사에서 이정후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지난 4일 오프시즌 FA 톱 25명을 선정하며 이정후를 13위로 꼽았고, 전날 미국 폭스 스포츠는 타자 FA 랭킹에서 이정후를 4위로 꼽았다.

MLB닷컴은 "한국 KBO 스타가 MLB에 적응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정후는 비교적 순조롭게 (MLB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후의 발목 수술을 언급하면서도 빅리그 진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이정후 '히어로즈의 히어로'

라고 예상했다.

MLB닷컴은 "7월 발목 부상으로 올 시즌 86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메이저리

안) 통산 타율 0.340, 출루율 0.407, 장타율 0.491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와 재능을 고려할 때 이정후는 대형 FA 계약을 맺을 가능성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MLB 구단들의 기대 수준에 달려있다"고 예상했다.

이정후와 함께 뽑힌 FA는 오타니 쇼헤이(로스엔젤레스 에인절스), 블레이크 스넬(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코디 벨린저(시카고 컵스), 맷 채프먼(토론토 블루제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조던 몽고메리(텍사스 레인저스), 에런 놀라(필라델피아 필리스), 루커스 지올리토(클리블랜드 가디언스)다.

/ 최준용 기자



김민선 '결승선을 향해'

스케이트 교체한 김민선, 준비는 끝났다

10일 1차 월드컵 출격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24·의정부시청)이 2023-2024시즌 첫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김민선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 출전해 새 시즌 첫 금메달을 노린다.

지난 5일 대표팀 동료들과 일본으로 출국한 김민선은 10일 오후 2시 30분 여자 500m 1차 레이스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 여자 단거리 종목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 김민선과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유타 레이너(네덜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의 차세대 에이스 페케 쿠, 2019년 세계 챔피언 바네사 헤어초크(오스트리아), 2022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린 잭슨(미국) 등이 출전할 예정이다.

김민선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2021-2022시즌까지 평범한 선수로 평가받던 김민선은 지난 시즌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단숨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 시즌 월드컵 1차 대회부터 5차 대회까지 여자 500m 금메달을 쓰러졌다.

시즌 막판엔 체력 문제로 고전했으나

비시즌 보강 훈련 등을 통해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이번 대회는 김민선이 새 스케이트를 신고 출전하는 첫 국제무대라서 더 눈길이 쏠린다.

김민선은 최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스케이트

구두를 교체했다.

보통 선수들은 2~3년 주기로 낡은 구두를 교체하는데, 김민선은 올림픽 시즌 때 최고의 기량을 펼치기 위해선 올 시즌 구두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케이트 교체 시즌엔 적응 과정이 필요해서 개인 기록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김민선은 빠른 적응력을 보인다.

그는 이달 초 서울 테랑빙상장에서 열린 회장배 대회에서 새 스케이트를 신고 38초05의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제갈성렬 의정부시청 감독은 "새 스케이트를 신으면 발의 각도가 미세하게 변할 수 있어서 기록이 떨어질 수 있는데 김민선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면 김민선은 몸 상태를 완벽하게 끌어올리진 않았다.

제갈 감독은 "김민선은 지난 시즌 초반부터 많은 에너지를 쏟은 탓에 시즌 막판 해마다 점점 피트니스를 올려 시즌 막판 최고의 기록을 짜겠다는 작전이다.

제갈성렬 감독은 "김민선은 올림픽을 바라보며 이번 시즌을 준비했다"며 "조금 생각하지 않고 한 시즌을 치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박현우 기자



허구연 총재, 3년 더 KBO 이끈다

만장일치로 총재 후보 추천

허구연(72·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2027년까지 한국 프로야구 수장으로 일한다.

KBO 사무국은 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2024년부터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총재 후보로 혼임 허총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허총재는 단독 후보로 추천됐고,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KBO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허구연 후보에 대해 향후 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O 정관에 따라 재직 회원 4분의

3 이상이 허구연 후보에 대해 찬성할 경우 제25대 총재로 선출된다.

이미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후보 추대를 받은 만큼, 총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정지택 전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주대됐던 허총재는 야구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야구 대통령'인 KBO 총재 자리에 올랐다.

올해 말까지가 임기인 허총재가 연임에 성공하면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박현우 기자

가장 매혹적인 라인의 탄생

**GENESIS GV80
GENESIS GV80 COUPE**

‘더 마블스’ 감독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보고 박서준 캐스팅”

1989년생 마블 최연소 감독 니아 다코스타…“10대 때 한국문화에 끌려들어”

“10대 후반부터 K팝,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 문화에 끌려들어 있었어요.”

마블 스튜디오 신작 ‘더 마블스’를 연출한 니아 다코스타 감독은 7일 국내 취재진과의 회상 인터뷰에서 한국 콘텐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평소 한국 콘텐츠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혀온 그는 1989년생 여성 감독으로 역대 마블 작품을 연출한 감독 가운데 가장 어리다. K-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북미까지 뻗어나가던 때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는 “내 이름은 김삼순, 온 에어, ‘소울메이트’, ‘커피프린스 1호점’ 같은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다”면서 “예능 프로그램도 즐겨봐서 (한국 연예인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고 물으면 유재석이라고 답하곤 했다”며 웃었다.

다코스타 감독이 자신의 첫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에 박서준을캐스팅한 것도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보게 되면서다. 그는 “친구 추천으로 본 이 드라마에서 박서준이 눈에 확 들어왔다”



영화 ‘더 마블스’ 니아 다코스타 감독 회상 인터뷰 갈무리

며 “몇 개월 뒤 ‘더 마블스’ 연출을 수락하게 되었을 때 ‘안 왕자’ 역으로 그가 안성맞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연락해 출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본 박서준은 엄청난 재능이 있는 배우고 좋은 에너지를 현장에 가져왔다”며 “재밌는 사람이라서 사랑받으면서 일했다”고 촬영 당시를 돌아봤다.

박서준이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더 마블스’에서 노

래와 춤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사는 알라드나 행성의 군주 안 왕자 역을 맡았다. 예고편에서도 캡틴 마블과 함께 춤을 추는 안 왕자의 모습이 담겼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감은 큰 인물이라는 게 다코스타 감독의 설명이다. 박서준은 앞서 영상을 통해 “저도 제가 이 영화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모든 게 다 놀랍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인공 캡틴 마블을 맡은 배우 브리 라

슨은 “박서준은 제가 지금까지 같이 일해본 사람 중 가장 유명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코스타 감독은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캡틴 마블과 얀 왕자는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공통점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얀 왕자를 주인공으로 한 스피어프라제 제작될 가능성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MCU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블 스튜디오 사장인) 케빈 파이기만 안다”며 웃었다.

오는 8일 개봉하는 ‘더 마블스’는 2019년 개봉한 ‘캡틴 마블’의 속편으로, MCU 최강 히어로로 꼽히는 캡틴 마블을 주인공으로 한 두 번째 작품이다. 1편에선 크리족 전사로 살아가던 비어스가 자신이 과거 캐럴 댄버스라는 이름의 전투기 조종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캡틴 마블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다.

/ 김태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조교’ 제이홉, 군인요리대회 사회자로 검토되다가 취소

신원식 국방장관 “보직외 임무 시키지 말라” 지시

BTS가 다른 용사들처럼 병역 의무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더 좋은 모습이고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절 연예인을 하다 (군에) 들어온 병사에게 보직 이외의 다른 일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잘한 조치”라며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예외 없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군대에 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군에 갔다 해서 연예인이 활용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호응했다. 제이홉은 지난 4월 18일 강원도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해 기초군사교육을 받았으며 육군 제36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선발됐다.

지난달에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인 팀의 막내 진(31·김석진)에 이어 일정 기준 이상 기준을 충족한 장병에게 주어지는 ‘특급전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장관은 “원래 아나운서 한 분과 BTS (제이홉)까지 두 명이 사회를 보는 것으로 전의가 들어왔다”며 “제가 보기에는 중이다.”

/ 황윤찬 기자

하춘화, 12세 조카 손녀 하유나와 신곡 ‘엄마와 딸’ 발표

하춘화♥하유나



엄마와 딸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요
제가 여기고 너에게요

가수 하춘화가 미국 뮤지컬 배우 하유나(12·본명 최유나)와 신곡 ‘엄마와 딸’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HA기획이 6일 밝혔다.

‘엄마와 딸’은 ‘외길춘화’·‘휘뚜루 마뚜루’ 등을 만든 유명 작곡

가 이호섭이 곡을 쓰고, 하춘화가 직접 가사를 지은 노래다.

하춘화와 하유나는 뉴욕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하유나는 하춘화의 조카 손녀(언니의 손녀)로, 6세 때 뮤지컬 ‘인어공주’ 플라운더 역으로 데뷔한 이래 연극 ‘크리스마스 캐럴’과 뮤지컬 ‘마틸다’ 등에 출연하는 등 미국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다.

하춘화는 노래에 재능을 보인 하유나를 친딸처럼 귀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하유나는 올여름 한국을 방문해 하춘화와 이 곡을 녹음했다.

하춘화는 유튜브 채널 ‘하춘화 TV’를 통해 하유나와 함께 출연한 ‘엄마와 딸’ 뮤직비디오도 공개했다.

하춘화와 하유나는 ‘엄마와 딸’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엄마로 와주셔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라고 노래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하춘화와 하유나는 K팝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지금 K트로트라는 새 장르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민경 기자

/ 황순길 기자

김동욱, 새 드라마 ‘강매강’에서 엘리트 경찰로 변신



배우 김동욱이 새 코미디 드라마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이하 ‘강매강’)에서 강력반 형사로 변신한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동욱이 내년 SBS에 방송되는 드라마 ‘강매강’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7일 밝혔다.

‘강매강’은 전국에서 겸기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한 지역 경찰서 강력반에 엘리트 반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코미 범죄 수사극이다. 김동욱은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추고 외국 유명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까지 제안 받고도 돌연 겸기 실적 전국 꼴찌인 송원경찰서 강력 2반의 반장으로 자원한 주인공 동방유빈을 연기한다.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금융으로 세상을 . 이롭게



"마, 한번 해 보입시더"

세계의 대전환을 이끌어 갈 역동의 도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의 도시
부산에 힘을 모읍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